Entertainment p/18

싸이 "달밤에 체조합시다"

메트로 2013년 10월 [illegible]

smart it p/12

유튜브 유료 서비스 도입

서울 자사고 선발권 되레 강화

NEWS p/02

기준치 3배 '발암물질 청바지'

NEWS p/03

내년 전월세 숨통 트이나

ECONOMY p/09

프로포폴 트리오 실형 선고

메트로 2013년 10월 28일 월요일

두산 1승 더 하면 'KS우승'

신통한 빅데이터 '위험한 유혹'

수십억건 정보 분석해 실생활 활용…국내시장 급성장
서울 심야버스 노선 구축·월마트 소비성향 파악의 열쇠
개인정보 유출·정보집중·네트워크 장애 등 혼란 우려도

빅데이터가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각광받으며 이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빅데이터란 ▲서로의 방대한 양(Volume) ▲서로의 빠른 생성 속도(Velocity) ▲정보의 다양성(Variety) 등 3V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기존 IT 시스템으로는 저장·관리·분석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 다양한 정보 속에서 필요한 마케팅 정보만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월마트는 2011년 소셜미디어 회사인 코스믹스(Kosmix)를 인수해 SNS와 콘텐츠를 관리·분석함으로써 소비자 소비 패턴을 조사해 마트 운영에 반영했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인물·사건·장소·제품·조직 등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고객이 필요한 물품을 빠르게 채움, 불필요한 재고 낭비를 방지하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선 심야버스 정책에 빅데이터 분석을 반영해 주목받았다. 서울시는 KT가 보유한 정보인 시민들이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량 30억여 건과 시가 보유한 정보인 시민들이 이용한 심야택시 승하차 데이터 500만 건을 융합해 심야버스 노선을 구축했다.

이번 사례는 안전행정부가 지난달 주최한 '제30회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처럼 빅데이터는 방대한 정보를 수집해 효과적으로 실생활 나 분야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5월부터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대용량의 데이터를 연계해 공익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SK텔레콤·KT 등 이동통신 사업자와 LG CNS·SK C&C 등 시스템통합(SI) 업계에서도 관련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발표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5년 3000억원 규모로 성장해 2020년에는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빅데이터가 성공의 미래만 있지는 않다고 강조한다. 성공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방대한 정보의 상관관계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만을 찾아내야 하는데 최근 텍스트·오디오·비디오 등 비정형 데이터 생산 비중이 커지며 이에 대한 정보 분석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

이 같은 방대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며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도 빅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넘어서야 할 숙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박원준 전임연구원은 "빅데이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정보 집중화 현상, 네트워크 장애와 같은 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 같은 문제로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면 빅데이터에 대한 청사진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이어 "빅데이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가 데이터 공유와 활용에 대한 기본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기술 개발과 빅데이터를 분석, 적용할 수 있는 인력 양성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이건희 회장 '신경영 20주년' 행사 참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2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그룹 신경영 20주년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연합뉴스

방위산업전시회 오늘 개막 한 시민이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ADEX 2013)' 프랑스 살콤회에서 신궁 미사일 발사대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29일 개막돼 다음달 3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식당·PC방 흡연 합동단속…흡연자도 과태료

정부가 다음달부터 식당과 PC방 등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구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음식점·호프집·찻집 등에서 흡연실 규정과 금연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반은 영업장 150㎡ 이상 규모의 식당 등을 돌며 금연구역 지정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또 전면 금연구역임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에는 330만원, 3차 위반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PC방은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지만 지난 7월 시행됐던 1차 단속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금연정책에 비협조적이거나 전면 금연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동참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당·PC방 등이 전면 금연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공중이용시설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중국 언론의 황당한 반전

기자 수첩
조 선 미
<글로벌부 기자>

최근 중국에서 대형 국영기업의 비리를 폭로한 기사를 썼다가 체포된 기자 사건의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당초 이번 사건은 언론의 자유 논란으로 중국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해당 기자가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고 기사를 썼다고 시인, 기자의 윤리 논란으로 그 초점이 바뀌었다.

광둥성 3대 신문 신쾌보(新快報)의 천융저우 기자는 중국 2대 건설장비 업체의 재무 비리를 파헤치는 기사를 실어 기업의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됐다. 이에 신쾌보는 1면 전체를 할애해 자사 기자의 석방을 촉구했다.

그런데 천융저우가 뇌물을 받고 허위 보도를 했다고 자백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언론의 사회적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비춰졌던 기자가 하루아침에 타락한 뇌물수수 기자로 바뀐 것.

대기업의 달콤한 유혹에 기자 노동자가 힘없이 무너진 것인지, 중국 당국이 대중 자백을 강요한 것인지 진실은 알 수 없다. 다만 어느 쪽이 진실이든 승자는 언론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권력자 아닌가.

한국에서도 정부의 부정부패와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다가 법정에 선 언론인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지난해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두 사람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천융저우 사건에서 중국판 나꼼수의 무죄 등 기대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 기분이 씁쓸하다.

정홍원 총리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철저히 규명해 책임 묻겠다" 대신…

국회는 경제 살려달라!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규명을 약속하고, 경제활성화·민생법안 입법에 대한 국회와 정치권의 협조를 호소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어떤 문제도 더이상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정치권에 호소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주요 현안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당장 외국인투자촉진법안만 통과돼도 2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 공장 착공으로 총 1만4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진흥법안이 입법화되면 약 2조원 규모 호텔 건립 투자로 4만7000여 개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크루즈산업지원법안, 창업지원법안, 벤처기업육성법안, 자본시장법안, 소득세법안, 주택법안 등을 거론하며 "경제를 살리고 국가 미래를 견인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가 이번 회기 내 이러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 총리의 담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경제·민생법안 입법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야권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각종훈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정문회 준비 돌입한 김진태 후보자 신임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진태(가운데) 후보자가 28일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자사고 선발권 강화…교육부의 굴욕

교육부가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에 학생 선발권을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 정부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추첨으로 1.5배수 선발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따르면 서울지역 자사고 24곳은 추첨으로 1.5배수를 선발하고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리도록 했다.

서울을 포함한 평준화지역 자사고 39곳의 선발 방식을 중학교 내신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바꾸겠다는 기존 시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교육부는 "성적 제한 철폐를 고수한 대신 자사고 측에 일부 선발권을 주는 것으로 타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은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 교육 역량을 고민했다면 자사고의 존폐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자사고 선발 방식을 추첨 후 면접 방식으로 바꾼 것은 결국 정부가 일부 특권층에 무릎을 꿇은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방식에서는 내신 50% 안에서 자사고가 학생을 무조건 받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면접을 통해 지원 학생의 중학교 때 성적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마음만 먹으면 면접을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 자사고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김윤기자

동양그룹 사기성 CP 의혹 검찰, 세무조사 자료 확보

검찰이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의혹과 관련,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5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동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제출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09~2010년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동양그룹의 주식 이동 실태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무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동양그룹의 그간 재무 상태 및 회계 상황을 파악하고 계열사 간 의심 거래 단서를 추적할 계획이다. /김민준기자

내달 1일 도봉 어울림 한마당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다음달 1일 오후 1시부터 도봉구청에서 '주민자치와 함께하는 도봉애 을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한다.

개그맨 박세민이 진행하는 주민자치 문화공연과 함께 주민자치 사업활동 사진, 서예, 한지공예, 냅킨아트 등 자치회관 수강생 작품 100여 점을 전시한다.

발암물질 '청바지의 배신'

베이직하우스 기준치 3배 검출… 리바이스 가장 안전

국내 유통되는 일부 청바지에서 발암물질 및 내분비계 장애 유발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8일 12개 브랜드 남성용 청바지 15종의 품질과 안정성을 점검한 결과, 베이직하우스 'HNDP2121'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릴아민의 기술표준원 고시 기준치는 1kg당 30mg 이하로 'HNDP2121'은 88.8mg/kg이 검출됐다. 같은 브랜드 제품인 'HNDP2132'에서도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지만 11.6mg/kg이 발견됐다.

에비수, 게스, 빈폴, 버커루, TBJ, 베이직하우스와 청바지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 유발 물질인 NPEs가 소량 검출됐다.

섬유 제품의 염색 공정에서 사용되는 NPEs는 인체에 축적되면 발기부전, 무정자증 등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NPEs가 가장 많이 검출된 청바지는 에비수 제품(EL8JP014)으로 해당 청바지에서는 1kg당 412㎎의 NPEs가 검출됐다.

리바이스 2종과 빈폴 제품은 염색 견뢰도 등에서 소비자원 섬유 제품 권장 기준 이상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청바지 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내 '비교공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형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들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남성용 청바지 품질 안정성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여러종류의 청바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인 4명 중 3명 화장 선택

화장률 74%…20년새 4배

우리나라 장례 10건 중 7건이 화장 방식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28일 발표한 화장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화장률은 74.0%로 집계됐다. 이는 20년 전인 1992년(18.4%)에 비해 4배 넘게 증가한 수치로 2011년과 비교해도 2.9%포인트 상승했다.

성별 화장률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77.2%, 70.1%였다. 시·도 중에서는 부산이 87.8%로 가장 높은 화장률을 기록했고 인천(85.8%), 울산(81.8%), 서울(81.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충남(55.9%), 제주(57.4%), 전남(57.4%), 충북(59.0%) 등에서는 화장의 비중이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였으며, 수도권의 화장률이 81.3%로 이외 지역(69.1%)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경남 사천시의 화장률이 92.6%로 1위를 차지했으며, 경남 통영시(91.9%)와 경북 울릉군(91.4%) 등도 화장률 90% 이상을 기록했다. /[illegible]기자

고운 가을꽃 시민들이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우리 꽃 한마당 축제'를 찾아 국내 화훼 농가가 재배한 꽃을 구경하며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400편 판매 '김민장' 잡고보니 남고생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 400여 편을 판매한 남자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안산고등학교 1학년 A(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에게 음란물을 구입한 성인 7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미성년자 7명은 선도 조치했다.

A군은 모바일 메신저에서 '김민장'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사이버 머니를 받고 스마트폰에 저장한 음란물 380여 편을 77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물 중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70여 편도 포함돼 있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파스테르나크 노벨문학상 거부

195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닥터 지바고'의 러시아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로 결정됐으나 그는 1958년 10월 29일 스웨덴 한림원에 노벨상 수상을 거부한다는 전보 한 통을 보냈다. 1957년에 출간된 '닥터 지바고'는 인간성에 기반하지 않는 혁명은 어떠한 혁명도 이기적인 공산에 의해 각색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러시아혁명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내 출판사들이 출판을 거부해 작가는 소설을 이탈리아에서 출판해야 했다. 노벨상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러시아에서는 파스테르나크에 대한 비난과 함께 국외로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그는 제1서기장 흐루시초프에게 "조국을 떠난다는 것은 내게 죽음을 의미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보내 추방만은 면했다.

metro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Colombia

Lo que hay es ba
hagamos música

60

metro Canada

Des livres québécois à lire dans l'autobus

몬트리올 버스 정류장에 전자책 QR코드

캐나다 몬트리올이 전자책을 읽을 수 있도록 버스와 정류장에 QR코드를 제공한다. 이번 캠페인은 125개의 공공버스와 50개의 버스정류장을 대상으로 전자책 QR코드를 보급한다. 내년 1월 20일까지 캠페인이 진행되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코드를 찍으면 퀘벡주 작가들의 책 첫 장을 무료로 읽을 수 있다. 읽을 수 있는 책은 총 41권이며 청소년 추리물, 역사소설, 요리책, 여행, 만화소설 등이 있다.

metro Portugal

...semprego ...tugueses

...(73%) considera que o ... UE deverá ser aplicado ...ça social e emprego ...guindo-se o crescimento ...com 58% de responden... e para 54% dos portu... ...ívida pública (UE: 41%). ...ao papel da moeda ú... portugueses discordam ...tenha contribuído para ...efeitos da crise (UE 51%).

55% dos portu...

포르투갈인 85% "최우선 과제는 실업문제"

유로존의 최우선 해결과제는 무엇일까? 유로 바로미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포르투갈인의 85%는 실업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꼽아 EU 평균인 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두 번째는 연금 문제로 포르투갈인은 43%, EU에서는 31%가 이 문제를 꼽았다. 이 밖에도 포르투갈 조사 대상자의 73%는 EU 예산을 사회보장 문제 해결이 실업 문제 해결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etro France

자전거 음식 노점 佛 트리포뛰 인기

프랑스에서 자전거로 길거리 음식을 파는 '트리포뛰(triporteur)'가 인기를 끌고 있다.

트럭에서 과일을 파는 푸드트럭(food trucks)이 있다면 트리포뛰는 자전거 트리사클(Tricycle)로 길거리 음식을 판매한다. 세발자전거를 변형한 트리사클은 뒷부분을 개조해 길거리 음식을 싣고 판매하는 신개념 노상이다.

친환경적인 데다 가격도 저렴하고 운영하기 편해 차세대 노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트리사클은 파는 것도 독특하다. 햄버거·타코와 같은 정형화된 음식 대신 주인의 취향과 지방의 특색을 곁들인 메뉴들을 선보이는 것.

몇몇 메뉴는 프랑스 전통 레시피를 이용하기도 한다. 프랑스 리옹의 경우 브리오슈 소시지(saucisse brioch ée)부터 양고기 스튜까지 독특한 길거리 음식이 가득하다. 아몬드 헤이즐넛, 피넛에 캐러멜을 가득 올린 디저트도 봉지당 2유로에 판매된다.

한편 판매되는 메뉴는 환경친화적 취지에 따라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다. 보르도의 트리포뛰는 제철 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소개한다. 파리의 트리사클에서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핫도그가 4.5~5유로의 가격으로 판매된다.

함께 마실 음료를 원한다면 트리사클에서 파는 칵테일도 좋다. 파리와 리옹의 경우 직접 만든 수제 아이스크림이 판매되기도 한다.

하지만 인기를 끌고 있는 일부 지방과 수도를 제외하고는 트리포뛰의 영업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몇몇 단체가 길거리 판매가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토마스 데르 기자 정리=심우리 인턴기자

안전모로 만든 트럼펫·PVC관 바이올린… 하수구 튜브 리코더·테니스라켓 기타…

폐품으로 빚은 환상의 선율

'쓰레기 오케스트라' 화제

쓰레기통 구석을 전전하던 폐품을 악기로 재탄생시켜 심금을 울리는 연주를 선보이는 멕시코의 '쓰레기 오케스트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리는 환경축제 '쓰레기 제로 페스티벌'을 앞두고 이들이 콜롬비아를 찾아 화제다.

PVC관, 빈 병, 나일론 조각, 나무 막대기, 냄비, 깡통…

쓰레기 오케스트라가 가져온 악기들은 그야말로 순도 100% 쓰레기로 제작됐다. 단원들은 폐품을 스카치 테이프로 꼼꼼하게 엮어서 멋진 악기로 만들었다. 이렇듯 손수 제작된 악기가 30개가 넘는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쓰레기나 폐품이 단원들의 손을 거치면 마술 피리로 변신하는 것.

악기 이름도 개성 만점이다. 단원들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모 위에 호스를 연결한 낡은 트럼펫을 '머리트럼펫(trompecabeza)', PVC관을 몸통 삼아 줄을 매 만든 바이올린을 'PVC바이올린(Pvioluncho)'이라고 부른다. 심지어 하수구 튜브로 만든 피리와 테니스 라켓으로 만든 미니 기타도 인상적이다.

악기는 지저분하고 보잘것없지만 음악을 향한 이들의 열정은 대단하다.

오케스트라 단원 디에나 퀸손은 "단지 쓰레기로 악기를 만드는 신기한 사람들이란 평가를 넘어 훌륭한 음악을 연주하는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며 "우리가 콜롬비아에 온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음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고타시 어린이들과 함께 악기를 만드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청소년 문제 해결 도움 기대

퀸손은 "참의러우 발휘해 직접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경험이 가족과의 불화, 약물 중독, 교육 부재 등 중남미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중남미 국가의 어린이들은 직접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카스 빈호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8일>

코스피 2048.14 (+12.75)	코스닥 534.88 (+0.95)
금리 2.83 (+0.03)	환율 1060.50 (-1.50)

소비심리 '봄날'…CSI 1년5개월만에 최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심리지수(CSI)가 1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10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 102보다 4포인트 오른 106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10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폭으로도 지난해 4월 이후(4포인트) 이후 최대폭이다.

세부 지표도 호조를 보였다. 가계의 생활형편전망CSI는 전월 95에서 이달 99로 뛰었고 수입전망CSI도 97에서 101로 올랐다. 소비지출전망CSI 역시 105에서 109로 치솟았다. 특히 의류(98→102), 의료·보건(107→112), 교육(101→104) 등 필수재의 개선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이국명기자 kmlee@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꿔' 380조 신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신경영 선언' 20주년 기념 만찬… "자만말고 재무장" 강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8일 신경영 20주년 만찬에서 "자만하지 말고 위기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회장은 이날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변화의 심장이 뛴다'는 주제로 열린 '신경영 20주년 기념 만찬 행사'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실패가 두렵지 않은 도전과 혁신,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쉬는 창조경영을 완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우리가 이룬 성과만큼이나 사회적 기대와 책임도 한층 무거워졌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회장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초일류기업을 향한 새로운 첫발을 내딛고 다시 한 번 힘차게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 같은 이 회장의 위기론에 대해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저울엔 자존심도 상하고 서운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위기감이 절절하게 느껴졌다"며 의지를 다졌다.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 역시 1990년대 이건희 회장의 디자인경영과 소프트경쟁력 강조 사실을 언급하며 "이 회장의 앞선 안목과 생각이 결국 지금 세계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삼성의 명품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은 1995년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의 불량제품 화형식 영상을 바라보며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내 자식같은 무선전화기가 타들어가는데 내 몸이 타는 것 같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그 화형식을 계기로 불량에 대한 안이한 마음은 털끝만큼도 안남기고 다 태워버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을 비롯, 삼성그룹 사장단과 부사장단, 협력사 대표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경영 20년의 성과와 의미, 주요 경영진의 신경영 회고와 다짐, 이 회장의 신경영 20주년 영상메시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1987년 말 취임한 이 회장은 5년 만인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주요 계열사 임원을 모아놓고 "국제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2류나 2.5류가 된다. 지금처럼 잘해봐야 1.5류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는 신경영을 선언한 바 있다.

삼성은 이후 1993년 29조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380조원으로 13배 늘고, 수출은 107억달러에서 1572억달러로 15배 증가하는 등 큰 성장을 일궜다.

/박성훈 이재영기자 zen@metroseoul.co.kr

뉴스 & 뉴스

'혜택축소 숨긴 카드영업' 금감원 대대적 단속키로

● 금융감독원이 부가 혜택을 줄이는 사실을 숨기고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시중 카드사에 부가 혜택을 축소할 예정에 있는 신용카드 상품을 모집 시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도 공문을 내려보냈다. 최근 일부 카드 상품들이 수익성 악화로 부가 혜택을 축소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는 했으나 해당 카드 설명에는 이 사실을 빠뜨리는 등 고객을 현혹한 경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형석기자

"우리 경제는 벼랑끝 버스"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린 버스와 같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모두 벼랑 끝에 걸린 버스를 운전한다는 자세로 경제 운용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하려면 입법이 지체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지기자

"시리얼로 하루를 든든하게" 28일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새로 출시한 PB 시리얼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원화 하락은 대세? 관건은 속도!

당국 개입해도 경상흑자·외국인 매입 등 하락 요인 즐비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추가 하락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전 거래일보다 0.7원 내린 1061.1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달 말 열리는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양적완화 축소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환율 하락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지난주 연저점을 내준 당국이 환율의 추가 하락에 강도 높은 개입 의지를 밝힘에 따라 하락폭은 제한될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환율이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경상수지 흑자 행진, 외화예금 잔액 증가,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자산 매입, 조선업계 수주 등 환율 하락 요인이 즐비하다는 점에서다.

이들은 또 연말 안에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장중 최저치인 달러당 1048.9원(2011년 8월 1일)을 뚫고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심리는 재차 환율 하락으로 급격히 쏠려 달러당 1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달러당 1000원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당국이 환율의 하락 추세를 돌리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속도는 조절할 것으로 본다"며 "1050원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그동안 환율이 많이 내려왔으니 외국인으로서도 원화가치 상승이 투자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이라며 "환율이 내려가는 힘만큼 떠받치는 힘도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美 셧다운 여파로 출구전략 늦춰질듯

하반기 성장률 전망 하향

세계 금융기관들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의 여파를 들어 미국의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오는 29~30일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도 양적완화 축소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2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세계 68개 주요 금융기관의 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연율, 중간값 기준) 전망치는 3분기 1.9%, 4분기 2.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미 정부의 예산·부채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극한의 대립각을 세운 지난달 전망치 집계보다 각각 0.1%포인트씩 하향 조정된 것이다.

미국의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이란 관측에 따르면서 양적완화 축소 예상 시기도 점차 미뤄지고 있다.

10월 FOMC에서 양적완화 축소 단행을 전망한 세계 주요 금융기관 이코노미스트들의 비중은 전체 74곳 중 3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양적완화 규모가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금융기관도 있었다. /김현정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271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6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752-2600
독자센터	02)721-9765

2002년 5월 31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 다06251)

뉴스 & 뉴스

하림 영수증 경품 이벤트 '손잣' 28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창립부터 한달간 진행되는 하림 자연실록의 영수증 경품 행사 '여왕의 귀환'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보증 1조3000억 미회수

● 대한주택보증이 주택 분양사업 심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보증 사고 90건에서 주택보증이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이 총 1조29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주택보증의 회수율은 34.2%로 장기 목표 회수율인 74%에 크게 못 미쳤다.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은 "구체적인 회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설기자

편의점·대형마트 매출 '희비'

● 지난달 편의점과 백화점 매출은 늘고 대형마트 매출은 감소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편의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3% 증가했다. 이는 가공식품류(13.2%)와 즉석 신선식품류(9.2%) 매출 증가의 영향이다. 반면 대형마트 매출은 지난 7월부터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9월과 비교해 5.3% 줄었다. 특히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한 소비자 불안으로 수산물 매출이 정체됐다. 이 밖에 백화점 매출은 레저 열풍에 힘입어 1년 전보다 2.8% 증가했다.

매일유업 김선희 신임대표

● 매일유업 신임 대표이사에 김정완 회장의 사촌동생인 김선희(사진) 부사장이 내정됐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창근 사장의 후임으로 김선희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에 내정했다. /이채성기자

'휘는폰' 삼성·LG 곡면방향 다르네

좌우 오목 '갤럭시 그랜드' 이어 상하 굽은 'G플렉스' 공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격변이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근 접히는(플렉서블) 스마트폰을 잇따라 출시한 데 이어, 일본 전자업계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TV에 이어 스마트폰에 적용된 접히는 디스플레이는 현재 국내 업체가 앞서가는 형국이지만, 일본도 산학연 협동으로 활발한 연구 개발에 나서며 다시 한 번 과거 '전자왕국' 역 재현을 노리고 있다.

국내 업체의 경우 삼성전자가 지난 10일 세계 최초로 디스플레이가 오목하게 휘어진 5.7인치 대화면의 스마트폰 '갤럭시 라운드'를 출시했다.

이 스마트폰에 탑재된 디스플레이는 휘어지는 성질을 가진 플라스틱 기판에 적색·녹색·파란색의 빛을 내는 유기물질을 픽셀 하나하나에 집적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스마트폰 최고 해상도인 풀HD 화질을 제공하고, 디스플레이의 좌우 곡률 반경이 400mm가량으로 오목하게 휘어진 디자인을 구현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라운드(왼쪽)와 28일 공개된 LG전자의 휜 스마트폰 'G플렉스'. 두 제품은 각각 좌우, 상하로 휜 모습이 다르다.

이렇게 휘어진 디자인은 색다른 기능을 지원한다.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바닥에 놓고 좌우로 기울이면 날짜와 시간, 부재 중 통화, 배터리 잔량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음악 재생 중 스마트폰을 좌우로 기울이면 이전곡이나 다음곡을 재생할 수 있다.

현재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분하고 있지만 접히는 스마트폰의 상용화로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애플은 그간 손에 쥐었을 경우 불편함이 없도록 4인치 미만의 소형 스마트폰을 고집하는 등 눈으로 보는 휴대기기보다 손으로 쥐고 드는 기기에 초점을 맞췄다.

LG전자도 28일 다음달 출시 예정인 접히는 스마트폰 'G플렉스'를 공개했다. G플렉스는 6인치 디스플레이 화질이 수지상 HD(1280×720)로 플라스틱 기판 위에 OLED 소자를 입혔다. 빨간색과 녹색, 파란색 등 3개의 서브픽셀을 넣은 '리얼 RGB' 방식이다.

크기는 160.5×81.6×7.9mm 무게는 177g이다. LTE-A 통신망을 지원하는 퀄컴의 2.26GHz 쿼드코어 프로세서와 구글 안드로이드 4.2.2 운영체제 기반이다. 카메라는 후면 1300만 화소, 전면 210만 화소, 램은 2GB DDR3. 색상은 티타늄 실버 한 종이다.

이에 대응해 일본 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23일 일본에서 열린 국제 평판 디스플레이 포럼 및 전시회 'FPD(Flat Panel Display) 인터내셔널 2013'에서 소니·도시바·히타치의 중소형 액정 패널 사업 통합사인 재팬디스플레이는 5.2인치 풀HD급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선보였다.

또 일본 반도체에너지연구소(SEL)은 벤더블(Bendable) 배터리를 탑재한 3.4인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5.3인치 사이드롤(Side-Roll) 디스플레이를 전시했다.

/김태균기자 ksrt@metroseoul.co.kr

'고려청자 느낌 담은' 이탈리아 명장의 티 세트 이탈리아 디자이너 잘레산드로 멘디니가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한국도자기와 협업해 만든 티 세트 '지오메트리카'를 선보이고 있다. '지오메트리카'는 고려청자를 본떠 원들의 조합과 곡선을 가미한 조형으로 동양미가 물씬하다. 멘디니는 이탈리아의 현존하는 세계 3대 디자이너로 손꼽히는 명장이다. /연합뉴스

이건희 주택 '재계 최고가'

이태원·삼성·서초 등 3채 1년새 6.9%올라 281억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소유한 주택 가격이 국내 30대 재벌그룹 총수 보유 주택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재벌닷컴이 30대 재벌그룹 총수가 거주하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별장 등 비거주 제외) 올해 6월말 기준 공시가격은 총 1577억원으로 작년 동월(1440억원) 대비 9.6% 상승했다.

재벌 총수의 집값이 오른 것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일부 총수들이 신규로 주택을 매입하며 보유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보유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것은 이건희 회장으로 281억원에 달했다. 이 회장은 이태원 자택이 지난해 118억원에서 올해 130억원으로 10.2% 상승한 것을 비롯해 삼성동·서초동 주택 등의 공시가격도 올라 지난해(263억원)보다 평균 6.9% 올랐다.

이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주택 가격이 지난해 73억원에서 올해 128억원으로 74.5% 올라 30대 재벌 총수 중 두 번째로 집값이 높았다. 3위는 구자열 LS그룹 회장(87억원), 4위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70억원), 5위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69억원), 6위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68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혁기자 dy0423@

동양생명·동양자산운용, 동양그룹과 결별

동양생명·동양자산운용이 동양그룹과 결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동양생명이 현재 지분 73%를 가진 동양자산운용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28일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최근 동양자산운용에 대한 경영 진단에 나서 이달 말까지 경영 현황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했다. 동양생명은 이 과정에서 동양자산운용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동양 사태로 불완전 판매 논란의 중심에 선 동양증권과의 관계를 끊어 동양생명과 동양자산운용에 대한 시장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동양 사태로 인한 불필요한 투자풍을 막기 위해 동양생명과 동양자산운용이 동양그룹과 확실하게 정리하기를 원하고 있다.

동양자산운용은 지분 73%를 가진 동양생명이 대주주이고 나머지 지분 27%를 동양증권이 갖고 있다.

/김현정기자 minj@

11월 전국에서 새 아파트 1만8000여 가구가 입주를 개시한다. 올 하반기 분양시장 대어로 꼽히고 있는 마곡지구 모습. /손진영기자

내년 전월세 시장 숨통 트이나

아파트 입주물량 올해보다 36% 증가 예상

내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월세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에도 전국에서 새 아파트 1만8000여 가구가 입주를 개시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융결제원 입주자 모집공고 자료와 대한주택보증 보증 실적, LH 입주계획 등을 바탕으로 내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산정한 결과, 올해 20만5000가구보다 36.5% 증가한 28만5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경우 올해 8만8000가구보다 8% 증가한 9만5000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5만2000가구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서울은 올해 2만8000가구에서 내년에는 3만1000가구로 9.4% 늘어나고, 인천시는 8000가구에서 1만2000가구로 48%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내년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9만 가구로 올해보다 57%나 급증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내년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이후 지방 택지지구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내년에 대부분 준공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늘어나면 주택 수급이 안정된다"며 "올해 심각했던 전월세 대란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달에는 전국에서 1만8000여 가구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오는 11월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34곳 1만8580가구다. 전년 동월 대비 9726가구 늘어난 물량이며 이달 1만6399가구보다는 2181가구 증가했다.

네이버 500억 들여서 중소상공인재단 설립

국내 1위 포털 네이버가 500억원을 들여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조직을 만든다.

네이버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창립준비위원회와 '상생협력기구 설립준비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상설 기구로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을 연내에 설립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희망재단은 네이버가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중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마케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홍보·영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통 산업과 인터넷 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상공인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를 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온라인 비즈니스 협력위원회'와 '소상공인경제학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단 설립과 함께 100억원을 출연했다. 상생 협력 사업계획이 구체화함에 따라 2년차와 3년차에 각각 200억원씩을 더 출연할 계획이다.

하남유니온스퀘어 기공식 '인산인해' 28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환안2지구에서 수도권 최대 교외형 복합 쇼핑몰 '하남유니온스퀘어' 착공식이 열려 많은 학생·시민들이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6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하남유니온스퀘어는 백화점(4만5000㎡)을 비롯해 전문점(1만2000㎡), 패션관(4만7000㎡), 트레이더스(창고형 할인매장·1만2000㎡) 등이 들어선다. /뉴시스

삼성전자·현대 기아차가 30% 벌었다

46만개 국내 기업 전체 순이익 86조원 중 25조 차지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사실상 국내 산업계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거둔 순이익은 국내 전체 기업의 30% 수준으로 파악됐다. 46만 개 기업 가운데 단 3개 업체가 3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한 셈이다.

27일 한국은행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국내 영리법인 실적을 전수 집계한 '기업경영분석'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당기순이익(별도 기준)은 모두 24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삼성전자·현기차를 포함한 46만4425개의 국내 기업이 거둔 순이익은 총 86조6000억원이었다. 단 3곳의 대기업이 46만 개에 달하는 전체 기업이 거둔 과실의 28.6%를 차지한 것이다.

삼성전자·현기차가 전체 기업의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도까지만 해도 14.0%에 불과했지만 2010년 16.2%, 2011년 18.9%로 높아지더니, 지난해 2009년의 두 배 수준까지 뛰었다.

반면 2012년 전체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0년(111조7000억원)과 비교해 22.4% 줄었다. 이는 이 기간 미국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악재로 국내 경기도 침체된 탓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삼성전자·현기차를 빼면 이 낙폭은 10%포인트 이상 커진다. 삼성전자·현기차를 뺀 나머지 기업들의 2012년 당기순이익은 61조8000억원으로 2010년(93조5000억원)보다 33.9%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현기차의 당기순이익은 18조1600억원에서 24조8000억원으로 36.8% 증가하며 전체 기업 실적을 떠받쳤다. 삼성전자·현기차를 뺀 나머지 기업은 실적이 사실상 정체했거나 더 악화된 셈이다.

뉴스 & 뉴스

생일 앞둔 삼성전자 사옥 단장

28일 삼성전자가 창립기념일(11월 1일)을 앞두고 경기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의 한 건물 외벽에 브랜드 경쟁력 제고의 일수 요소인 혁신을 강조하는 'DISCOVERY STARTS HERE(발견은 여기서 시작된다)'를 새기고 있다. /뉴시스

글로벌기업 후보 46곳 육성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글로벌 전문기업 후보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46개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글로벌 전문기업 후보기업의 업종은 기계·장비 15개사, 전자부품·통신장비 11개사, 금속·화학제품 10개사, 자동차·조선 4개사, 의약품 4개사 등이다.

산업부는 글로벌 전문기업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략·금융·인력·마케팅 등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전문기업 후보기업 150여 개사를 추가 선정해 총 200개사 후보기업을 관리할 예정이다.

KT스카이 영업이익 46% ↑

KT스카이라이프는 올 3분기 영업이익 24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9.1%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매출은 1491억원, 당기순이익은 1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 10% 증가했다.

신규 가입자는 약 21만 명, 순증 가입자는 9만6000명을 모집해 3분기 말 기준 유지 가입자는 약 416만 명을 기록 중이다. 특히 이 중 KT IPTV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가입자는 214만 명이다.

LG유플 3분기 '흑자 전환'

LG유플러스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올 3분기 영업이익이 149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2조8792억원으로 2.1%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756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의 증가 추세에 대해 2011년부터 롱텀에볼루션(LTE) 시장에서 이어온 꾸준한 성과를 바탕으로 무선 수익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및 데이터 수익을 기반으로 한 유선 사업의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뉴스 & 뉴스

정보보호 등급제 내년 시행

●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부터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는 기업의 종합적 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에 따라 '우수' 및 '최우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미래부는 기업 정보보호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12월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심사원 양성 및 안내서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영기자

SK컴즈 '선플 지지 캠페인'

● SK커뮤니케이션즈가 28일부터 한 달간 (사)선플운동본부와 함께 '악플 없는 인터넷세상' 선플 지지 서명 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 참여는 SK컴즈의 사회공헌 사이트 '사이좋은 세상'(cytogether.cyworld.com/)에서 할 수 있으며 선플 지지 서명 이용자 대상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SK컴즈는 캠페인 기간 동안 네이트뉴스 악성 댓글을 막는 '선택적 내 이름 표시제' 동참도 유도할 예정이다.

SK컴즈 정재엽 팀장은 "네이트가 깨끗한 댓글 문화를 만드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음성인식폰 10억대 넘을듯

● 올해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한 휴대전화의 판매량이 10억 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올해 음성인식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의 판매량은 10억4900만 대로 전년(8억5600만 대) 대비 22.5% 늘어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SA는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7년에는 14억21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SA는 전체 스마트폰 중 음성인식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올해 63%에서 2017년 7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영기자

PC방 점유율 70주 1위 '이유있네'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어 대접·사회공헌 '감동'

최근 국내 게이머 사이의 화두는 라이엇게임즈의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를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느냐다.

즉 너무 많은 게이머가 몰리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고 이에 따라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게임업체나 소비자 모두 난감한 상황이지만 게임의 인기와 위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70주 가까이 PC방 점유율(평균 40%)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연할 수 있는 '롤' 인기의 비결은 무엇일까.

28일 업계에 따르면 '롤'은 게이머에게 감동을 주는 마케팅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는 '롤'의 웹대일 문의 게시판 답변이 큰 화제를 모았다.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플레이어가 기운을 얻기 위해 롤 커뮤니티 사이트에 플레이어를 써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라이엇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플레이어와 각종 선물을 전달하며 위로했다.

이 밖에도 결혼식을 앞둔 롤 플레이어가 자신의 온라인 청첩장에 남겨진 축하 메시지 수가 적다며 라이엇 직원에게 축하 인사를 적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고객센터의 직원들이 나서 해당 플레이어의 방명록에 자신들이 닉네임으로 쓰고 있는 각각의 캐릭터의

대사를 패러디해 인사글 했다.

PC방과의 상생 정책도 인기에 한몫했다. 라이엇은 2011년 12월 국내 진출 당시부터 PC방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는 불만에 귀 기울였다.

110여 개의 챔피언(게임 캐릭터) 모두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게임 포인트를 20% 추가 증정하는 방식의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해 PC방 매출 향상을 유도했다.

2~3주마다 새로 출시되는 신규 챔피언을 먼저 즐기기 원하는 상당수 유저는 PC방으로 발길을 돌렸다.

사회공헌 활동도 큰 인상을 주고 있다. 한국적인 문화를 담은 구미호 전설 기반의 한국형 챔피언 '아리', 한국 전통 탈춤을 형상화한 게임 아이템 '신바람 탈 샤코' 스킨 등의 판매수익 전액인 11억원을 문화재청에 기부했다.

토종 기업도 관심을 갖지 않는 국내 문화재 보호에 외국계 기업이 나선 것이다.

구기향 라이엇게임즈 홍보팀장은 "플레이어의 눈높이에서 니즈를 파악하고 원하는 방향을 따라 e스포츠부터 각종 서비스까지 진행하면서 진심이 통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순수 전기차 스파크EV 양산 한국GM은 28일 경남 창원공장에서 순수 전기차인 쉐보레 스파크EV의 양산 1호차 생산 전달식을 개최했다. /연합뉴스

'신의 직장' 취업문 활짝

공기업 공공기관 채용 일정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공공기관 채용이 활기를 띠고 있다.

2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incruit.com)는 29일까지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일반직 5급으로 일반행정과 정보기술(IT)로 나눠 채용한다. 학력, 전공 및 연령은 제한이 없으나 토익, 토플(IBT), 텝스 중 1개 이상의 영어 성적은 필수다. 고급 자격증(공인회계사·세무사) 소지자는 우대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2급 취득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대한체육회(sports.incruit.com)도 28일까지 신입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모집 직종은 일반직(7급), 전문위원(다급),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협력관(사원)이다. 일반직과 평창동계올림픽 대회협력관의 필기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상식(행정학·경영학·체육학·일반시사) 및 인·적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초과학연구원(www.ibs.re.kr)에서도 31일까지 직원을 모집한다. 모집 직종은 행정직·기술직으로 공인영어시험 성적 토익 700점, 토플 79점, 텝스 555점, G-TELP(레벨 2기준) 64점 이상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recruit.kimst.re.kr) 역시 다음달 4일까지 직원을 채용한다. 모집 분야는 해양 연구 개발(R&D) 관리, 홍보, 경영 관리다. 연령, 성별,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준 이상의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취업비용 펀딩·인강 공동구매 '신풍속'

"저의 취업투자자를 찾습니다. 취업 품앗이하실 분?"

취업 준비 부담이 커지면서 새로운 취업 풍속도가 나타났다.

지난 3월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취업준비생 김모(27)씨는 최근 취업 카페에 취업투자자 모집 게시물을 올렸다. 김씨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취업준비생들은 사진 촬영, 인·적성 교재 구입 등 여러 명목의 취업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이러한 취업비용을 조달하고 취업 성공 시 첫 월급을 투자자들에게 돌려드리는 마케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28일 현재 김씨는 펀딩 시작 3주 만에 14명으로부터 48만원을 모았다. 네티즌들은 "기발하다",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취업 품앗이는 주머니가 가벼운 구직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취업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값비싼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공동구매해 아이디를 공유하거나, 스터디 공간 대지비라도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방식이다.

한 구직자는 "인터넷 강의 아이디 공유는 불법이지만 강의료가 너무 비싸 품앗이에 참여했다"면서 "접속 시간이 겹치지 않게 서로 조율해서 수강하는데 빨리 취업해서 이런 생활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라이나 실버암보험 80세도 가입 가능

라이나생명보험이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 가입 나이에 제한 또는 인수 기준을 완화해 실버암보험 상품을 다시 출시한 것이다. 라이나생명은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고령자 전용 암보험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고혈압, 골다공증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무심사를 허용해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심사 상품으로 고안됐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이다.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특히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 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 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면서 암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약을 함께 개발됐다.

17세기 파리, 남자의 전설이 부활한다!

10월 29일 1차 티켓오픈

2013.12.13~2014.2.2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www.musicalthreemusketeers.com

생명 살리는 국제특송

IT도 인문학이다
/박성훈기자 ...

일상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크다. 우리가 종종 이용하는 국제 배송에도 첨단 IT기술이 포진하고 있다.

몇 년 전 A씨는 골수 이식용 혈액을 채취한 뒤 미국에 있는 오빠에게 보냈다. 오빠의 백혈병 치료를 위한 것이었는데 관건은 24시간 안에 혈액을 최상의 상태로 환자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A씨가 미국으로 가서 채혈을 하거나 오빠가 한국에 들어와 수술을 받는 것이지만 분초를 다투는 환자 입장에서는 비행기 특송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다행히 혈액은 제시간에 미국 혈액센터에 배송됐고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다. 비결은 국제 운송 서비스업체 TNT의 '클리니컬 익스프레스' 덕이었다.

이 서비스는 시간과 온도에 민감한 임상의약품·진단용 표본이나 바이오 의약품의 안전하고 정확한 운송을 책임진다. 이러한 물건들은 대개 섭씨 1도의 온도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뿐 아니라 운송 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도 커 별도의 공정이 필요하다.

데이터 로거(Data Logger: 온도 모니터링 장치) 부착은 필수다. 운송 중의 온도 변화를 기록해 요청한 온도 상태를 유지하고 변질을 막는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온도 추적·통제가 가능한 냉장·냉동 장치를 이용하기도 한다.

최근 신생아 출산 시 필수가 된 제대혈 보관 서비스에서도 이러한 기술이 활용된다. 제대혈은 채취 후 상온(4~25도)에서 보관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므로 혹서기나 혹한기에 상온의 온도를 맞추는 게 핵심이다.

이외에도 국제특송 기업들은 ▲화상 환자를 위한 피부 조직 ▲신종플루 임상시험을 위한 혈액 샘플 등을 운송, 환자의 치료와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사실 IT기술과 의학은 나란히 발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종 질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CT(컴퓨터 단층 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CT(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등의 영상의학 관련 장비들이 대표적이다.

속도뿐 아니라 배송 물건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IT기술은 조만간 우주여행 시 사용될 음식 운반에도 관여할지 모를 일이다. /경제산업부 차장

유튜브 "돈 내고 보세요"

12월부터 유료 서비스 도입…'광고 시청' 대신 월 10달러 수수료 내야

"이제 돈 내고 쓰세요."

앞으로 IT 서비스 이용 시 이런 작업장을 자주 보게 될 전망이다.

유료화 신호탄은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올해 12월께 유료 음악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재는 동영상을 보기 전에 광고를 최소 5초 이상 시청해야 했다. 유튜브가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면 이러한 사전 광고를 보지 않는 대신 수수료를 내고 뮤직비디오 등을 시청할 수 있다. 지금과 달리 동영상을 모바일 단말기에 내려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유튜브 유료화 서비스 요금은 월 10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를 관리하는 구글은 이번 유료화 시도로 광고 매출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유튜브는 지난 5월 유료 콘텐츠 구독 채널을 신설하며 부분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유료화 반대 움직임도 일고 있다.

IT업계의 유료화는 곳곳에서 펴지는 중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선보인 기업용 보안 솔루션 녹스는 올해 안에 유료화될 전망이다.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유통 채널에 어떤 파급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게임업계에서 유료화는 마니아층을 형성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진화했다. 초기에는 무료로 시작하되 인기를 얻으면 정식 서비스 때 유료로 전환하거나 일부 아이템과 서비스 진척을 유료화하는 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 유료 전환의 경우 누구나 무료로 동영상을 공유한다는 창업 시점과 배치돼 사용자의 충분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윤희기자 ...@metroseoul.co.kr

나 혼자 손쉽게 고치는 '멀티 이보' 28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전동공구 전문기업 블랙앤데커(Black&Decker)가 최첨단 공구 시스템 '멀티 이보(Multi Evo)' 출시 기념 행사를 열고 있다. 이 제품은 한 손으로 작업할 수 있는 콤팩트한 사이즈로 다양한 헤드의 호환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학부모 46% "자녀와 즐기는 게임 없다"

학부모와 교사는 가정 내에서 게임 문화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J E&M 넷마블은 서울특별시 청소년미디어센터와 함께 지난 24일부터 3일간 '2013 미디어 소통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가정 내 미디어 사용 실태조사와 'ESC 프로젝트 게임문화교실'의 효과성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자녀와 함께하는 게임은 무엇이며 일주일에 몇 시간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에 46%가 '함께하는 게임이 없다'라고 답했다. 함께 게임 플레이를 해본 가정에서는 보드게임(46%), 스마트폰 게임(27.6%), 비디오 게임(15%) 순으로 자녀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온라인 PC게임은 4.6%에 그쳤다.

자녀가 하고 있는 게임명을 몇 가지 알고 있는가(PC·스마트폰 게임 포함)에 대해서는 33.1%가 '2개', 29.6%가 '3~5개'를 안다고 답했으며 '모르며 관심 없다'는 대답이 11.2%였다.

또 자녀와 하루 대화 시간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 39.6%이며, 1시간 미만이 30.8%, 15~30분이 24.5%, 15분 미만도 4.4%로 나타날 정도로 학부모와 자녀 간 대화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기자

'삼성개발자 콘퍼런스' 개막

삼성전자가 주최하는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13 (SDC 2013)'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한다.

이번 회의에는 1000여 명이 참석해 모바일·TV·게임·크로스 플랫폼·웹·엔터프라이즈·수익 창출·삼성 서비스 등 7개 분야 50개 세션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S펜 이용을 지원하는 '삼성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키트(SDK)' ▲가까운 거리에서 콘텐츠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삼성 그룹플레이 SDK'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삼성 커넥티비티 SDK' 등이 공개된다.

또 ▲스마트 TV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삼성 스마트 TV SDK 새 버전' ▲스마트 TV와 모바일 기기를 연동시키는 '삼성 멀티스크린 SDK' 등도 공개된다. /이재영기자

피부 트고 코 헐고 '미운 아기' 탈출

환절기 영유아용 수분화장품·콧물티슈 등 인기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에 아기 엄마들의 고민은 커져만 간다. 영유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해 각종 피부질환이나 질병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최근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외출 후 아기 건강을 세심하게 관리해주는 유아 전용 제품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아기들은 피부의 각질층이 얇아 수분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 보습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존슨즈베이비 '베이비로션'은 트러블을 최소화해주는 '알러-테스티드 내추럴' 포뮬러로 피부를 24시간 촉촉하게 가꿔주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향이 순해 민감한 아기 피부에도 안심하고 쓸 수 있다.

건조한 아기 피부를 위한 존슨즈베이비 '수딩내추럴'은 90% 이상 자연 유래 성분의 효과를 그대로 담아 일주일만 사용해도 트기 쉬운 아기 피부를 건강하게 개선해준다. 실제로 화장품 효능 및 인전성 평가 전문 연구소 엘리드에서 제품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 사용 후 7일이 지나자 각 부위의 보습 정도가 볼 93%, 턱 63%, 귀 뒤 73%, 목 48%, 무릎 70%, 팔 79%, 엉덩이 61% 이상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스스로 칫솔질하기 힘든 영유아들은 입속에 우유나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어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

글레어스의 영유아용 구강 세정제 '블랑시크릿 베베'는 플라그와 음식 잔여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입속 세균 번식을 막아준다. 사과 향이라 아기들에게 거부감이 없고 거품이 적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0~4개월 아이에게는 거즈에 제품을 묻혀 닦아주고, 치아가 나기 시작하면 함께 구성된 '베이비 브러시'를 이용해 닦아주면 된다.

환절기에는 알레르기나 감기로 콧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반 휴지로 닦으면 코가 헐기 쉽고 수건은 젖은 채로 보관하면 더 많은 세균이 번식해 위험하다. 닥터아토의 '콧물 전용 티슈'는 식염수 처방이 돼 있어 코에 자극이 적고, 보습력이 강한 일로에베라잎 추출물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준다. 한 세에 1매 또는 5매씩 들어 있어 휴대도 간편하다.

/서지원기자

한우자조금 다음달 29일 '한우패티 요리대회' 개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우의 저지방 부위 소비 촉진과 한우 패티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해 다음달 29일 '제1회 한우패티 요리대회'를 개최한다.

대회에서는 제한 시간 내에 저지방 한우 부위를 사용해 맛있는 한우 패티를 만들고, 패티를 활용한 창작 요리를 완성시키면 된다. 자신만의 패티 요리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다음달 11일까지 한우패티 요리대회 홈페이지(contest.hanwoo114.co.kr)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통장사본+신분증사본과 함께 e메일(hanwoo_contest@d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총 20명을 선발하여, 대상 1명에게는 상패와 상금 300만원 등이 주어진다.

문의 (02)326-0505

아사이수퍼베리21 출시

종근당건강생활은 '아사이베리와 20가지 베리류를 한 잔에 담은 건강음료 '아사이수퍼베리21'을 선보였다.

아마존의 흑진주라고 불리는 아사이베리,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등 베리류 21가지를 자연 그대로 담은 건강음료다. 아사이베리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안토시아닌과 함께 오메가3·6·9, 비타민 A·B 등 풍부한 영양소를 갖고 있다.

1포당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 300mg이 들어 있으며, 합성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아 신선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가격은 1세트(80㎖×30포) 12만원이다.

강강술래 '아웃도어 먹거리 할인'

단풍놀이세트 30% 저렴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등산·캠핑을 떠나는 고객을 대상으로 조리가 간편하고 맛과 영양이 풍부한 아웃도어 먹거리 할인행사를 벌인다.

온라인쇼핑몰(sullae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다음달 3일까지 단풍놀이세트(한돈양념구이 1kg+돼지양념구이 1kg)를 30% 할인된 4만4900원에 판매한다.

이달 31일까지 한우사골곰탕 소용량선물세트(350㎖·5팩·10인분)는 1만8900원, 10팩짜리 세트(350㎖·20인분)는 3만7800원에 각각 40% 할인한다. 대용량 세트(800㎖·5팩·15인분)는 30% 할인된 3만7800원에 내놓는다.

흑염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흑염자한돈너비아니(3세트·1.08kg)는 40% 할인된 2만1600원, 100% 한우갈빗살을 사용한 찰찰한우떡갈비(3세트·1.08kg)는 30% 할인된 4만2000원에 선보인다.

홍대점에서는 다음달 10일까지 신메뉴인 한우 생등심과 모둠구이 등 모든 구이 메뉴를 50% 할인한다. '술래양념 한돈양념 돼지양념구이 포장상품도 '1+1 덤 증정 행사'를 통해 반값에 구입할 수 있다.

/서지원기자

한국관 '군닭400&국수' 론칭

명품한국요리점 한국관이 외식업 31년 전통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군닭400&국수' 브랜드를 론칭했다.

군닭은 직접 개발한 숯불 로스팅기를 이용, 400도 숯불로 구워내 기름은 쏙 빠지고 육즙은 살아 있어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군닭과 함께 제공되는 무피클과 오이피클도 오가피 한약재 등을 활용해 맛이 일품이다.

또한 낮 시간대에도 영업할 수 있도록 국수를 메뉴로 추가했다. 특히 흔한 멸치 육수 대신 한국관만의 레시피로 특제 육수를 개발하고, 천연 재료만을 사용한 비빔양념장으로 골뱅이 비빔국수를 선보이고 있다.

/서지원기자

BHC 'SK 농구관람권' 할인

BHC가 2013~2014 프로농구 시즌을 맞아 서울 SK 나이츠 프로농구단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정규 시즌 동안 서울 SK 나이츠의 홈경기가 열리는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BHC 제품 구매 영수증을 소지한 농구 팬들에게 3층 일반석 티켓에 한해 50% 할인해준다.

문의 www.bhc.co.kr

대한민국 구석구석 맛있는 여행 떠나요

관광공사 12월 15일까지 국내 '음식관광' 캠페인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21개 관계 기관 공동으로 12월 15일까지 '음식관광'을 주제로 한 하반기 국내 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한다.

관광공사는 캠페인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의 다양한 음식문화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며 음식문화 개선 활동, 지역의 음식문화 체험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 '대한민국 구석구석 맛있는 여행' 전용 홈페이지(food.visitkorea.or.kr)를 개설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로 특색 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전국 51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맛지도(시장경영진흥원) ▲어시장 및 착한가격업소(안전행정부) ▲음식체험박물관 등 음식 체험시설(농식품부) ▲기차 타고 별미여행(한국철도공사) 등 음식관광 정보를 중점적으로 소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광공사는 '내가 추천하는 여행지 먹거리' '구석구석 별미 여행 참가자 모집' 등 다양한 경품행사를 통해 여행상품권 등 총 2600여 개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관광공사는 명사 칼럼을 통해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주요 관광지의 음식점 테이블 위 개인용 위생지를 보급하는 한편, 국립국어원 주관으로 '한식 외국어 번역 표준안 마련' 등의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하반기 국내 관광 캠페인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에게는 더 다양하고 좋은 가을·겨울철 여행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용기자

엄홍길휴먼재단 무료 인공관절 선물

60세 이상 저소득층 퇴행성관절염환자 대상 무료수술 캠페인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받아 삶의 질 향상 도와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 중인 박모(69)씨는 요즘 들어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 때문이다.

자식들과 떨어져 살며 인근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박씨는 지난 40여 년간 장사를 해오다 무릎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병원을 찾았다. 박씨는 퇴행성관절염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수술' 권유를 받았지만 700만원가량의 비용이 든다는 말에 수술을 포기하고 말았다. 박씨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비용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진통제 처방으로만 버티던 박씨는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무료로 인공관절 수술을 후원하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현재 캠페인 신청 후 후원병원 발표를 앞두고 있다.

◆고령자의 무릎통증 원인 '퇴행성관절염'

박씨와 같은 고령자의 무릎 통증 원인은 퇴행성관절염인데 퇴행성관절염은 노화로 인해 무릎 연골이 점점 닳게 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연골이 어느 정도 손상되었는지에 따라 초·중·말기로 구분되며 초기에는 무릎이 시큰거리는 증상이 발생하고 중기에는 통증이 심해지나, 말기에 이르면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면서 무릎이 붓고 잠시어 나러 보앵[illegible] 할 수도 있다.

퇴행성관절염은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80%에게 발생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지만 약물치료나 주사요법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무릎 퇴행성관절염이 말기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이 된다. 인공관절 수술은 다 닳아버린 무릎관절을 금속으로 만든 인공관절로 대체해주는 수술로서 통증을 없애주고 관절의 운동 범위를 확보해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케 한다.

◆ 저소득층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 후원 캠페인'을 전개하는 '엄홍길휴먼재단'

인공관절 수술은 인공적으로 제작된 관절을 무릎 내에 이식해주는 수술법으로 한쪽 무릎만 받을 경우 환자 부담금은 약 250만~360만원이며 양측 무릎을 모두 시행할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가 든다. 또 별도의 입원비와 간병비, 수술 전후의 검사 및 진료 비용 등도 추가되며 만약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그 비용은 2배로 늘어난다.

이런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유로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말기 진단을 받아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엄홍길휴먼재단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방치해두고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엄홍길휴먼재단 캠페인 담당자에게 신청자의 어려운 사연과 증상을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엄홍길(사진)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건강한 무릎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재용기자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전화: 02)2272-8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 인터넷: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후원 캠페인 게시판을 통해 신청

여성 분비물로 건강 체크

흰색·투명한 미색이 정상
면역력 저하땐 지즈같고 질병땐 양 많거나 악취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쌀쌀한 날씨에는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 특히 여성들은 국소 부위 질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국소 부위 질환은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질염이다. 질염은 평소에 분비물 체크를 통해 증상 악화를 막을 수 있다.

건강한 여성의 경우 흰색이나 투명한 미색의 분비물이 배출되지만 면역력이 저하될 때 나타나는 칸디다질염은 분비물이 하얗고 치즈처럼 진한 형태로 나타난다. 세균성 질염은 분비물이 누런색 또는 회색을 띠고 양이 많으며 트리코모나스질염의 경우는 연녹색 거품과 함께 악취가 나는 분비물이 나온다.

◆외음부 청결 유지로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

이런 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활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스키니진과 같은 꽉 조이고 통풍이 안 되는 옷을 피하고 속옷은 통기성이 좋은 면 제품을 이용해야 한다. 또 물이나 땀에 젖은 옷을 장시간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외음부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알칼리성 비누는 질 내 산도 균형을 깨지므로 유익균 및 pH를 유지해주는 여성세정제, 무엇보다 질염의 원인균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김현영 산부인과 전문의는 "건강 상태 확인과 예방이 중요하다"며 "평소 국소 부위 세정 시 약국에서 판매하는 지노베타딘 등과 같은 의약품 여성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 [illegible]

'보청기 활용법 세미나' 서울 등지서 열려

복음보청기 다음달 4~9일 전문가 스토이플 초청 행사

복음보청기가 외국인 청각 전문가 맨프레드 스토이플을 초청해 보청기 활용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음달 ▲4일 영등포센터 ▲5~6일 종로5가센터 ▲7~8일 대구 반월당센터 ▲9일 부산 서면센터에서 각각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보청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보청기 활용도를 높이고 보청기를 더욱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달한다.

세미나의 초청된 맨프레드 스토이플(작은 사진)과 보청기 성능비교 장비 '클릭파인더'

복음보청기에 따르면 실제로 보청기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보청기의 적합화(fitting) 과정이 잘못돼 보청기를 구매한 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올바른 보청기 사용을 위해서는 개별 사용자의 청력, 귀 모양에 따른 맞춤화 과정을 거치며 사용자의 청력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적합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상담자의 전문 지식과 세심한 맞춤화 기술도 매우 중요하다.

복음보청기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보청기의 관리 방법을 재교육하고 보청기의 신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며 국내에서 유일한 보청기 성능 비교 장비인 '클릭파인더'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보청기 선택 방법도 소개할 계획이다.

세미나에는 복음보청기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세미나 기간 동안 보청기를 구매하는 경우 파격적인 할인 혜택까지 제공된다.

한편 맨프레드 스토이플은 싱가포르 히어링솔루션그룹의 매니징디렉터이자 보청기 전문가다. 문의 02)2266-3377

/황재용기자

음악실험 6년 끝 '新승훈'

새앨범 '그레이트 웨이브'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신승훈

“그좋던 음악과 2년동안 '절교' 비워야 채워짐 그때 깨달았죠

신승훈(45)이 6년간 이어온 음악 실험의 마지막 매듭을 지었다. '쓰리 웨이브즈 오브 언익스펙티드 트위스트'라는 이름의 3연작 시리즈로 '라디오 웨이브'(2008), '러브 어 클락'(2009)에 이은 마지막 미니앨범 '그레이트 웨이브'를 발표했다. 마침내 지난 열 장의 정규앨범이 대한 에필로그이자 앞으로 시도할 음악의 프롤로그를 완성했다.

◆ 앨범 판매량 1500만장 가요 역사

1990년 데뷔 앨범 158만 장, 5집 247만 장 등 7장의 앨범을 연속 100만 장 이상 팔았다. 누적 앨범 판매량만 1500만 장을 넘기며 한국 가요계에 큰 획을 그었다. 10장의 정규앨범 뒤에 기획한 3연작 미니앨범은 "흥행 감독이 실험적인 단편영화 세 편을 찍은 것"이라고 비유했다.

"2006년 10집까지 내고 나니 11집에 대한 부담이 컸어요. 20년 넘게 꾸준히 앨범을 냈고, 앞으로 20년은 더 음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간 점검이 필요했죠. 지난 6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신승훈 이제 힘 빠졌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석 장의 앨범을 통해 앞으로 어떤 걸 할 수 있고, 해야 하며, 하지 말아야 할지 깨닫게 됐어요."

4년으로 계획했던 3연작 기간은 6년으로 늘어났다. 이번 앨범을 작업하기 전에 2년간 아예 음악을 끊고 지내기도 했다.

"음악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내가 미친 건지 음악이 미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노래를 200번 이상 듣던 저가 말이죠. 들어보면 나태해졌던 거죠. 그 후로 8~9개월간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미친듯이 들었어요."

미니앨범 3연작 시리즈는 흥행 감독의 단편영화 격

펑키디스코-재즈합 장르 이번에도 다양한 도전곡

'주옥같던 작사' 중단 10년 11집땐 '감성라이터' 컴백

슬럼프를 겪으며 비워야 채워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내가 그동안 너무 목숨 걸고 음악을 했고, 너무 많은 것을 담아내려고 했다"고 말했다.

"조용필 선배님이 '헬로'에서 6개의 악기로만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 낸 것에 감탄했어요. 단지 좋은 감각이라고만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비운 뒤에 나오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음악이라고 느꼈죠."

◆신곡 5개, 리메이크 4곡 … 장르 종합세트

이번 앨범에는 5개 신곡과 두 장의 미니앨범에 수록된 4곡을 리메이크해 담았다. 모던록과 크로스오버를 추구했던 지난 앨범에 이어 이번 앨범에도 다양한 실험을 가미했다.

타이틀곡 '소리'는 한국적인 애절함을 접목한 브리티시록이다. '러브 위치'는 1980년대 펑키디스코로 버벌진트의 랩을 더해 완성도를 높였다. '내가 많이 변했어'는 재즈적인 요소의 피아노 진행과 힙합 리듬이 만난 재즈힙합 장르로, 다이나믹듀오의 최자가 피처링을 맡았다.

"힙합에만 유독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안 해봤던 장르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볼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렉트로닉 쪽으로도 같게 관심을 가졌더니 클래지콰이의 클래지가 '형님 너무 가셨습니다'라며 말리더라고요."

수록곡 전체를 작곡했지만 이번에도 작사는 하지 않았다. 2004년 9집 '두 번 헤어지는 일' 이후 작사를 중단했다.

"철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가수는 철이 들면 안 되는데… 진정성 있는 가사를 쓰기에는 6년간 철이 들어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사랑'도 10분 만에 썼는데 어느 순간 감정이 무뎌졌죠. 11집부터는 다시 써야죠."

감정이 메마르도록 연애와는 담을 쌓고 지내왔지만 앞으로도 아닐다 할 계획은 없다.

"위해실이 있으려면 지난 23년간 늘 따라 오는 게 나은데 그동안 쭉 없었으니 이왕이면 앞으로도 없었으면 해요. 상대방에게 미안해서죠. 그래도 요즘은 사줌이 큰 번씩 만나던 (김)민종이와 자주 안 만나니 연애 기회는 많아지지 않을까요."

/유순호기자 sunn@metroseoul.co.kr

사진/도로시컴퍼니 제공 디자인/박은지

star bag

'노예계약' 발언 소송전 비화

비스트 용준형이 과거 방송에서 한 발언으로 인해 전 소속사 사장 김모씨와 KBS 간 소송에 휘말렸다.

소셜닷컴에 따르면 김씨는 용준형이 지난해 2월 출연한 KBS2 '승승장구'에서 '노예계약' 등의 단어와 '밥을 굶는 때' 등으로 자신과의 갈등에 대해 표현한 것과 관련해 7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고 최근 "KBS는 김씨에 대한 반론 보도를 방송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용준형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위증죄로 형사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일은 없어' 음원 차트 올킬

혼성듀오 트러블메이커가 미니 2집 타이틀곡 '내일은 없어'로 음원 차트를 올킬했다.

현아가 파격적인 연기를 펼친 뮤직비디오로 화제가 된 '내일은 없어'는 음원이 출시된 28일 오전 10시 멜론·엠넷·벅스·소리바다·올레뮤직·네이버뮤직·다음뮤직·싸이월드뮤직·몽키3·지니 등 총 10개 음원 사이트에서 모두 실시간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애견 도서 출간 … 수익 기부

배우 윤승아가 애견 도서 '강아지야, 너 무슨 생각해?'를 출간했다.

이 책에는 윤승아의 반려견으로 알려진 빔비 부와 보내는 소소한 일상과 반려견을 키우는 노하우, 동물병원 원장인 수의사 김건호가 들려주는 실용적인 조언 등이 담겨있다. 책의 수익금 일부는 동물보호단체에 기부된다.

2년만에 일본 팬미팅 성료

배우 공유가 2년 만에 연 일본 팬미팅을 성황리에 마쳤다.

그는 24~25일 도쿄 국제포럼에서 열린 '공유 스페셜 나이트 2013'에서 6000여 명의 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팬미팅은 12월 영화 '용의자' 개봉을 앞두고 팬들과 만나는 자리로, 일본 팬뿐 아니라 한국·대만·홍콩 등 아시아 팬들이 모였다.

'프로포폴 트리오' 실형 구형

검찰 장미인애 등 징역형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 이승연·박시연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투약 기간과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기소된 이들 여배우들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 이전까지 약 4~6년간 최대 500차례 투약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병원 두 곳에서 투약을 받고 간호조무사에게 추가 투약을 요청하기도 했다. 자신이 투약받은 마취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우유주사라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16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랐을 뿐이고 중독성이나 의존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의사 2명에게는 징역 2년~2년2월이 구형됐다. /윤순호기자 sunn@

왼쪽부터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 /뉴시스

김수현 작가·이지아 주연 SBS '세 번 결혼'

유이·정원우 출연 캐스팅 MBC '황금 무지개'

주말밤 안방극장 뭘볼까

주말 밤 시간대 안방극장이 새 판 짜기에 들어간다.

27일 나란히 종영한 MBC '스캔들'과 SBS '결혼의 여신' 후속으로 각각 '황금 무지개'와 '세 번 결혼하는 여자'가 다음달 2일과 9일 일주일 간격으로 첫 방송 된다.

'세 번 결혼하는 여자'는 드라마계의 대모 김수현 작가가 집필을 맡아 하반기 최고의 주말 기대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첫 결혼에 실패한 후 재혼한 오씨 가문 여자들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결혼 이야기를 담는다.

'엄마가 뿔났다' '인생은 아름다워' '무자식 상팔자' 등 쟁쟁한 작품마다 히트시킨 김 작가의 저력이 이번에는 어떻게 발휘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지아가 오씨 가문의 재혼한 둘째 딸 오은수 역할을 맡아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송창의와 하석진이 두 남편을 연기한다. 엄지원은 장녀 오현수로 출연한다.

'천추태후' '메이퀸' 등을 집필한 손영목 작가가 집필한 '황금 무지개'는 출연진이 화려하다. 유이와 정일우가 남녀 주인공으로 나서고 선 굵은 연기를 펼쳐온 중견 연기자 김상중과 조민기가 뒤를 받쳐준다.

줄거리는 일곱 명의 고아들이 친남매보다 더한 정으로 뭉쳐 살며 세상의 풍파를 헤쳐나가는 이야기다. '세 번 결혼하는 여자'보다 일주일 앞서 방영될 이 작품은 초반 10회를 아역 분량으로 구성해 시청률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은선기자 sak0427@metroseoul.co.kr

SM타운 떴다 10만명 몰렸다

도쿄돔 공연 성황… 日 137개 극장 실황 생중계도

SM타운 라이브'가 메머드급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강타·보아·동방신기·슈퍼주니어·소녀시대·샤이니·에프엑스·엑소·천상지희·제이민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총출동한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 3'가 26~27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렸다. 4시간 동안 50여 곡의 화려한 무대를 선사해 이틀간 10만 관객을 열광시켰다.

SM타운 라이브는 앞서 1월 중국 베이징 올림픽주경기장에서 해외 가수로는 최대 규모의 공연을 개최했다. 역대 최대 규모 경호 인력이 동원됐고, 시내 대중교통이 연장 운행되는 등 베이징시 전체가 들썩였다.

이번 공연에서 동방신기의 최강창민과 슈퍼주니어의 규현은 일본 듀오 유즈의 '이지고(왕가)', 소녀시대의 티파니와 슈퍼주니어M의 헨리는 '올모스트 이즈 네버 이너프', 규현과 소녀시대의 서현은 '뷰티풀' 등의 특별 무대를 꾸며 관객을 즐겁게 했다.

대부분의 가수들이 유창한 일본어 실력으로 관객과 가깝게 교감했다. 다음달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슈퍼쇼 5' 공연을 앞두고 있는 슈퍼주니어는 12월 일본 새 싱글 발매 소식도 함께 전해 팬들을 더욱 설레게 했다.

27일에는 티켓을 구하지 못한 현지 팬들의 뜨거운 요청으로 홋카이도·오사카·교토·히로시마 등 일본 전국 137개 영화관에서 공연 실황을 생중계하는 라이브 뷰잉 이벤트가 개최됐다. 27일 하루에만 영화관 스크린을 통해 6만여 명이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싸이 "달밤에 체조합시다"

2년 만에 연말 콘서트

월드스타 싸이(사진)가 2년 만에 국내에서 연말 콘서트를 개최한다.

싸이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싸이 콘서트 올라이트 스탠드 달밤에 체조'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올리고 공연을 공식 예고했다.

싸이는 포스터에 "달밤에 체조란 격에 맞지 않는 짓을 함을 핀잔하는 말이다. 올 한 해 무지하게 애쓴 우리 격에 맞지 않는 짓 딱 하루만 합시다. 아니, 실은 격에 맞는 짓 딱 하루만 합시다. 달밤 중의 달밤 성탄 달밤에 체조하기 좋다는 체조경기장에서 고객을 모시는 연주의 마음으로 1년에 거는 반작"이라는 재치 있는 글을 실었다.

그는 또 "올 한 해 아주 즐겼습니다. 본의 아니게 해외 강제 진출당한 지 벌써 1년. 그리지 적 없던 높이 매워 보이는 작은 고추 돼보려 했는 걱. 있는 걱 총동원했더니 느는 건 영어와 스트레스뿐이더이다. 축제를 가노 15곡씩 하던 제가 2곡으로 1년을 살았지 말입니다"며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싸이는 2011년 이후 2년 만에 연말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게 됐다. 단독 콘서트는 4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젠틀맨' 출시 기념 공연 이후 8개월 만이다. 이번 콘서트는 12월 20~22일 1회와 24일 2회에 걸쳐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유순호기자

버클리 음대 한인 유학생 퀸시 존스 장학금 받았다

팝의 거장 퀸시 존스가 장학 사업을 통해 버클리 음대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을 지원한다.

존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버클리 음대 총장실에서 자신이 직접 선발한 신명섭씨 등 한국인 유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퀸시 존스 스콜라십 바이 CJ'라는 이름의 장학 사업의 일환으로 버클리 음대에서 추천한 한국 성적 장학금 수여자 6명 가운데 존스가 직접 심사한 4명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존스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심사에 참여했으며 프로듀서·연주자·작곡가 등 다양한 인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유순호기자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This needs to get to Chicago by the end of the week. 우편물 보내기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May I help you?
B. Yes. I'd like to send this letter to my family in California.
A. 편지 부치기 전에 우표를 붙이는 걸 잊지 마세요.
B. Oops. Here you go.
A. Thank you.

정답 Don't forget to put stamps on the letter before you mail it.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생생영어팁

▶ **You can track the package on the internet.**
인터넷으로 소포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고객 등에게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할 때 보통 You can.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이 현재 어디에서 도착해 있는지 등을 추적해서 알 수 있다는 뜻으로는 동사 track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거의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으니 How convenient! 참 편리한 세상이죠?

현재완료시제 계속

▶ 과거의 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을 말할 때 쓴다. 기간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인 for(~ 동안), since(~ 이래로) 등과 함께 쓰인다.

긍정문	주어 + have/has + 과거분사 + 기간의 시간 표현
부정문	주어 + haven't/hasn't + 과거분사 + 기간의 시간 표현
의문문	How long + have/has + 주어 + 과거분사 ~?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_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I have lived here for 7 years. 저는 여기 산 지 7년 되었어요.
2. I haven't seen her since last year. 작년 이후로 그녀를 못 봤어요.
3.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여기에 사신 지 얼마나 되었어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Many residents of Alston have expressed ______ to the construction of a new warehouse complex near Fieldspring Lake.
(A) oppose (B) opposing
(C) opposes (D) opposition

02 Members of the Foster City Historical Society are petitioning to have ______ remains of the courthouse's original architectural elements preserved.
(A) which (B) that
(C) what (D) it

01. [illegible]
해설 동사 express의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opposition을 써야 한다.
어휘 resident 명 거주자 warehouse 명 창고 complex 명 복합 건물, 단지 oppose 동 반대하다
정답 (D) opposition

02 [illegible]
해설 [illegible] what을 써야 한다.
어휘 historical society 사학회 petition 동 탄원하다, 청원하다 remain 명 남다, 잔존하다 courthouse 명 법원 청사 original 형 독창적인, architecture 명 건축학의
정답 (C) what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6 의견 제시하기

질문 파악하고 의견 말하기

· 찬성과 반대 를 택하기

>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 *Cities should spend more money on improving public transportation than on building more roads.*
> 다음 논조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illegible]

주제문의 키워드를 파악하여 자신의 의견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결정한 후 I agree 또는 I disagree 뒤에 주제문을 연결하여 의견을 말합니다.

[의견 문장]

I agree (that) cities should spend more money on improving public transportation than on building more roads.
도시들이 도로를 더 많이 만들기보다는 대중 교통을 개선하는 데 돈을 더 써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4위의 기적' 1승 남았다

"5차전서 끝내자" 28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4차전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두산의 승리로 끝나자 두산 마무리 정재훈(오른쪽)과 포수 최재훈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산, 1회 선제 결승점·이재우 호투 · KS 전적 '3승 1패'로 우승 눈앞

두산 베어스가 정규시즌 4위 팀의 사상 첫 한국시리즈 우승(KS)에 단 1승만을 남겨놓았다

두산은 28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7전4승제) 4차전에서 선발 이재우의 호투를 앞세워 삼성 라이온즈를 2 1로 제압했다

전날 열린 3차전에서 삼성의 반격을 허용했지만 두산은 이날 승리로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앞서 나갔다

두산은 1회에 상대 선발 배영수를 상대로 선제 결승점을 뽑았다 1회 1사 후 정수빈의 번트 안타와 김현수의 볼넷으로 얻은 찬스에서 최준석이 좌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날려 첫 득점에 성공했다 두산은 계속된 1사 2 3루에서 양의지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추가 득점을 올렸다

삼성은 침묵한 방망이 탓에 선발 이재우를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9회까지 끈질기게 추격했다

8회 2사 후부터 던진 정재훈을 상대로 첫 타자 최형우가 우선상 2루타를 치고 나가고 박석민이 볼넷을 골라 무사 1 2루를 만들었다 이승엽이 1루 땅볼로 물러났지만 주자들은 2, 3루로 진루했고 이에 두산 배터리는 박한이를 고의사구로 걸러 1루를 채웠다 삼성은 이어진 타석에서 정현의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따라갔지만 구원 등판한 두산 윤명준이 진갑용을 유격수 땅볼로 잡아내며 두산이 승리를 지켰다 5차전은 29일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황재용기자

KS 4차전 전적

■잠실

삼성	000	000	001	1
두산	200	000	000	2

'미러클 두산' 찬란한 가을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두산 베어스는 당당한 우승 후보였다 두터운 선수층을 보유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선두로 치고 오르지 못했다 불펜에서 약점을 드러냈다 벤치의 경기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결국 시즌 4위로 주저앉았다

넥센 히어로즈와의 준플레이오프에서는 먼저 1~2차전을 내줬다 잦은 실수가 나오며 흔들렸다. 2013시즌도 절망이었다 그런데 3차전 패배 위기를 딛고 일어나더니 기적의 3연승을 따냈다 한 지붕 라이벌 LG 트윈스와의 대결에서는 철벽 수비를 과시하며 3승1패로 제압했다

한국시리즈 상대는 3주일 동안 휴식과 착실한 훈련으로 무장한 1위 삼성 라이온즈였다 대부분 9경기를 펼치고 올라온 두산보다는 삼성이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두산은 예상을 뒤엎고 대구 1~2차전을 잡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뚝심있게 승리를 따내자 언론은 미러클 이라는 형용사를 붙였다

두산이 한국시리즈까지 선전하는 이유는 의외로 선발진과 불펜이 견고했기 때문이었다 또 전 포지션에 걸쳐 1+1 이 가능한 두터운 야수층이 버텨줬다 벤치에 앉아있다 대개 선수로 들어가면 주전처럼 활약했다 승리할 때마다 MVP는 달랐다 2개의 라인업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가을에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지금까지 4위 팀이 우승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두산은 역을 제로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도 선수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 다친 선수들도 나오면서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다 이런 점에서 두산은 이미 뜨겁고 찬란한 가을을 보내고 있다

'공포의 턱수염' 보스턴 승부 원점 28일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미국 프로야구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보스턴의 조니 곰스(오른쪽)가 6회 3점 홈런을 터트리자 팀 동료 마이크 나폴리가 곰스의 턱수염을 잡아당기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보스턴은 곰스의 결승 홈런을 앞세워 4-2로 승리, 승부를 원점(2승2패)으로 돌렸다

/AP 연합뉴스

KYOBO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Kyobo Foundation for Education & Culture